

민수현(서울 강북 은하수 부교역자)

2010년 4월 3일

은하수 교역자 모임 때 이성교육에 대해서 의논하던 중에 예수님 생각은 어떠하실까 궁금해서

“예수님! 혹시 지금 저희가 이런 중요한 얘기를 예수님과 대화하며 여쭙보며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끼리 머리를 모아 의논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렇다면 진정 회개하니 용서해주시고 이성교육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주님과 의논하고 대화하며 주님말씀에 의거하여 깨닫고 싶습니다”

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예수님을 찾는 중에 마음에 강한 음성으로 들린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

마음에 나 예수만 있어야 한다.

그런 마음(예수님에게 향하던 마음)에 이성에 대한 관심을 넣으면 어찌되겠느냐?

나에게로 향하고 있던 그 마음의 길로 가다가 순간 다른 길로 빠져나가게 되어 버리는 것이다. 너희가 굳이 사귀거나 하지 않더라도 다른 이에게 마음을 둔 것만으로도 호기심을 가진 것만으로도 내 마음이 그곳에 그 마음에 머무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너희가 나를 너희 마음에서 밀어내는 것이다 .

그럼 난 또 다시 외톨이가 되고 거할 곳이 없게 된다.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다시 말씀을 이으셨는데, 느껴지는 느낌이 말로 표현하기 어렵지만 무거운 마음을 추스르시는 듯했고, 힘이 없으신듯 말씀을 이어하셨습니다.)

외로운 맘.....내 맘 외로워지면...너희도 외로워지는 것이다. 나를 위해서 못 한다면 너희를 위해 그 맘을 나에게 다오.

아무에게도 주지 말고 호기심도 눈길도 주지 말고 내게만. 딱! 내게만 집중하고 마음을 두어라. 내게만 관심을 두어라. 그래야 너희 맘이 내게 오고 날 얻고 죄를 짓지 않게 된다.

사탄이 더 이상 가까이 할 수가 없지.

그러니 제발 나만 찾아라!! 그것이 답이다!

(말씀에 마음이 뜨겁게 감동이 되어 “아멘” 하였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수현 : 그럼 예수님의 보물 은하수들은 어떻게 이성교육을 해주면 예수님보시기에 합당하겠습니까?

예수님 : 세상교육을 스스로 바로 잡을 수 있는 내 사상을 심어주고 가르쳐주고 교육해 주어라 .

수현 : 예수님, 어렵네요...(아이들 교육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이성을 사귀라고 하고 즐기라고 하며 이성에 호기심을 갖게 하는 교육을 하는데 왜 우리 섭리에서는 이런 교육을 하나며 묻고 따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들과 교사들이 모르게 몰래 이성교재나 자위를 하는 아이들도 있다고 해요, 이런 아이들은 말씀을 심각하게 못 알아듣고 있고, 교회 내/외서의 행동이 다르다고 합니다. 계속 그렇게 살다가 더 성장해서 섭리를 나간다고 할까봐 걱정입니다.

예수님 : 심판의 날이 곧 온다고 말하라. 아무리 나의 보물들 은하수 일지라도, 심판은 피할 수가 없다고.. 계시자 통해 아이들이 가는 지옥의 실상도 보여주어 외치게 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먼 훗날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교육해 주어라. 절대로 긴장풀면 안된다고 꼭 명심할 수 있도록 전하여라.

내 아이들 내 보물들은 내가 잘 해주고 예뻐해 주고 다독여만 주니 무서운 것을 모르고 하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랑에 등지면 얼마나 섬뜩한 기운들이 그를 감싸게 될지 몰라서 그러는 것이다. 그 즉시 마음이 살아서 지옥이 되는 것인데..

내가 그 곁에서 떠나면 내가 없는 자리에 누가 오게 되는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여 그러니 반드시 철저히 교육해 주어야한다.

절대로 절대로 쉽 없이 교육시켜야한다.

뇌속에 맘속에 박히다 못해 파이도록 교육해주어라.

이제 은하수에게도 하나님의 두려움과 엄위함을 반드시 알려 긴장의 허리띠를 조이게 만들어주어라. 이젠 정말 끝물인데 여기서 내 보물들 빼앗길 수 없으니 정신차리고 이 곁에 꼭 와서 긴장 풀면 안된다고 알려라.

(은하수를 가르치는 자들)살려면, (은하수)살리고 싶다면 내 아버지의 심판을 꼭 알려서 두려움, 무서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떠난 사람들이 가는 길이 어디인지를 꼭 알려주고 더 이상 이성의 죄는 세상이나 섭리나 은하수일지라도 용서치 않을 것이니 철저히 일러주어라.

세상에도 알려 심판을 면할 자들은 면할 수 있도록 외치고 전도하여라.

이제 정말로 정말로 곧 곧 끝이다.

불이 너희의 발끝에 떨어졌구나. 다음에 떨어지는 불은 너희의 발등이다. 너희에게 닿았으니 이젠 긴장 풀면 끝이다.

바싹 긴장하여 근신토록하고 사랑에 주의하라.
내 사랑 달아날까 주의하고 세상사랑 다가올까 주의하라.
사탄이 하는 일 구분하는 은하수 될 수 있도록 내 사랑하는 은하수들에게 알려주도록 하고 세상에 속하여 살면서 세상과 떨어져 사는 지혜를 가르쳐주어라.

내가 이제 너를 통해 말할 것이니, 이제 내 아이들의 목숨을 위해 목숨 걸고 기도해 주어라.
믿고 전했으니 내가 보겠다.
너희의 진실한 기도로 내 마음을 움직이길 바라며 사랑으로 전했으니 사랑으로 받는자 축복을 더하여 줄 것이다.
사랑으로 부탁한다.

-내 육신되어 수고하는 자들에게 사랑담아 나 예수가-